



**20년전만** 해도 석유산업 하면 美國을 연상했었다. 소위7대 메이저중 5개사 즉 엑슨, 텍사코, 모빌, 셰브론, 걸프가 美國系였고, 나머지 2개사가 英國系의 BP와 英國과 네덜란드의 합작사인 로얄더치셸이었다. 따라서 세계석유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유전, 정유공장, 유조선 및 주유소의 절반을 美國系메이저가 장악하고 있었다.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때만 해도 국제석유회사들은 일종의 초국가적인 세력으로서 국가의 주권보다 우선해서 활용 가능한 모든 石油를 세계전역에 공급하고 배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세계석유 산업에서 차지하는 美國系 석유사의 지배력이 컸기 때문에 美國의 이권은 확고히 보장됐다. 이러한 이유로 美國의 5대 메이저들은 美國외교정책에 있어서 오랜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이상 세계 石油시장이 美國 메이저들의 독무대가 되지는 못했다. 즉 메이저들의 세계석유산업의 지배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해 대체되었고, 그때까지 민간기업에 의해 지배되어 왔던 석유산업이 산유국의 사업참가 및 국유화조치에 의해 산유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세력을 빼앗기고, 때로는 존폐의 위기를 맞아 美國석유회사들은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그들의 자본기반이 잠식당하고 석유시장과 세계전역에서 철수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美國내에서도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사실 7대 메이저는 현재는 6개로 줄어들었으며, 아마 곧 5개 회사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걸프 석유는 셰브론에 흡수·합병돼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텍사코도 이 세상에 하나의 독립된 회사로 존재하기는 더이상 어려울 것이며, 만약 살아남는다 해도 종이 호랑이의 역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세기 동안 세계의 최대 석유회사였던 엑슨조차도 현재는 로얄더치셸에 뒤쳐져 2위를 달리고 있으며, 비록 엑슨이 아직까지는 메이저중 어떤 회사보다 최대 이윤과 최고의 수익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中東을 포함한 세계 거의 전역에서 조업활동을 줄여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의 파트너인 엑슨, 셰브론, 텍사코, 모빌은 지금도 아람코로부터 배럴당 26센트의 경영수수료(Management fee)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하루 4백만 배럴의 石油생산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이어서

그들이 계속 경영에 참여하게 될런지는 확실치 않다. 사우디는 1974년 그들 석유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시켰을 때 메이저들로부터 사우디 原油에 대한 이권에 개입할 기반을 차단시켰다.

美國정부측에서나 세계안보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美國의 대다수 메이저들에 대단히 중요한 石油, 특히 사우디 石油에 대한 접근은 아직까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우디 이외의 다른 지역들로부터 상당량의 石油이 공급되기 시작한 때부터 문제점은 줄어들고 있다. 요즘은 사우디는 그들의 石油을 판매하기 위해 동분서주, Ashland Total CEP, 三菱石油과 같은 석유회사들과 하루 최소한 10만 배럴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담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때는 사우디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싶어했던 회사들까지도 이제는 그러한 유혹에 쉽사리 빠져들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석유산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단기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BP와 셸과 같은 유럽 메이저들의 활동은 어느곳에서나 활발한 양상을 띄었는데, 셸은 원래 마케팅에 주력했던 회사였기 때문이고, BP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산유국들의 자원국유화로 인해 입은 매장량 감소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BP와 셸은 세브론과 텍사코, 모빌과 옥시덴탈 사이에 붙었던 흡수, 합병 열풍에 휩싸이지 않고, 그들의 美國 자회사를 통해 소수의 이권을 사들였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石油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매장되어 있는 石油자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유럽 메이저들은 기업인수 또는 단기이윤의 극대화에 대해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무관심할 뿐 아니라, 종종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와 잘 대처하려 들지도 않았다. 70년대초 미국무부는 임의 균형을 석유회사들로부터 OPEC로 넘어가도록 유도했으며, 최근 몇년동안 美國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美國 석유회사들을 리비아, 시리아, 앙골라로부터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리비아로부터의 철수는 美國의 경제적 이유 때문이 결코 아니며, 리비아에게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美國은 철수시켰으며, 자산을 헐값에 판매토록 했다.

요즘은 美國의회는 사회주의 앙골라에 대해 공연한 소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격분한 앙골라정부는 텍사코

와 세브론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양회사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장 전망좋은 새로운 유전들을 프랑스의 Total Petrobras, Agip사에 매각해야만 했다. 美國은 지금도 앙골라 石油을 수입하고 있으며, 앙골라는 美國 지원을 받고 있는 게릴라들과 교전을 계속했다.

멜러 세브론社 회장은 『현재 석유사업을 하는데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탐사에 따르는 위험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위험인데, 만약 美國정부를 정치적인 리스크 요소로 본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현재 단기적 결과에 치중해서 일고 있는 기업인수의 바람은 세계 석유시장에서 마지막 남은 美國의 지배력을 잘라내는 행동인 것이다. 마땅히 石油 개발을 위해 쓰여져야 했던 재원이 부채의 원리금 상환 등에 쓰여지는 등, 여느때 같으면 미래의 석유개발을 위해 적립해 두었던 재원이 흡수·합병등 단기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쓰여졌다.

예를 들어, 세브론은 유럽시장 조직의 일부인 Gulf Canada 와 앙골라에 있는 그들의 지분중 1/5를 매각 처분했고, 텍사코는 독일 텍사코를 처분할 계획이며, 유럽 정유시설과 시장조직의 일부인 2,200개의 지사도 처분할 계획이다. 만약 Carl Icahn의 방법대로라면, Texaco Canada와 칼텍스에 있는 Texaco Canada의 지분은 매각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엑슨은 그의 유럽시장 조직의 지분중 1/2을 사우디에 매각했으며, 옥시덴탈은 콜롬비아에서 크게 성공한 Cannot Limon프로젝트의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대부분 매각했다.

한편, 美國 석유회사들은 국내시장에서 조차 자기들의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달러화의 하락과 저주가로 美國은 외국정부 및 민간회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이다. 1980~1986년 동안의 美國 석유에 쿠웨이트 석유, 英國의 Lonrho, 프랑스의 Total Compagnie Française des Pétroles社들은 한결같이 美國석유에 대한 탐사권과 생산권을 취득했다. 그외의 다른 회사들은 美國의 石油매장량을 개발하기 위해 美國회사들과 합작투자하는데 뛰어들었다.

당연히 日本 회사들도 그러한 일에 참여해 왔다. 그들은 텍사코, 아모코, 세브론, 선과의 합작투자를 성취시켰다. 예를들어, 日本石油은 세브론으로부터 입차받은 지역에서 50개의 유정을 시추하는데 日本정부의 지원을 받아

100만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美國이 막대한 石油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을 때, 외국정부들은 입찰하기 위해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는 美國정유공장인 Champlin과 Citgo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美國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쿠웨이트는 최근 BP 소유의 막대한 美國 시설물들과 함께 BP의 지분중 22%를 소유했으며, 이보다 먼저 4,700개의 주유소와 걸프, BP 그밖의 회사로부터 英國과 北유럽에 진출해 있던 2개의 정유공장을 인수했다.

다른 주요산유국들(아부다비, 나이지리아, 리비아, 심지어 노르웨이까지)도 유럽에 있는 하류부문에 시험적인 진출을 시도했으며, 현재 멕시코와 사우디는 그들의 유전과는 별도로 석유자산들을 사들이고 있다. 앞으로는 4개 내지 5개의 메이저들과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사우디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산과 지분이 세계의 여러국가로 나눠짐에 따라 앞으로는 어떤 한국가가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기란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한편 사우디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美國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산재해 있는 자산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래에 다시 재현될지도 모를 아랍 금수조치와 같

은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양자의 방법을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시행하는데는 제한이 따른다. 석유산업에서의 주도권은 美國의 7대 메이저들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났으며, 이에 상응해서 특히 페르시아灣에서의 美國의 정치적 입김은 힘을 잃었다. 이에 반해 소련은 이미 南·北예멘, 리비아, 이디오피아, 시리아, 이라크에서 자체 세력을 확보했으며, 페르시아灣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체세력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中國으로부터 미사일을 공급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처음으로 소련과 공식외교 관계수립을 고려하고 있다. 쿠웨이트도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 보호를 위해 美國뿐 아니라, 소련의 보호도 요청했으며, 그로인해 소련 군함이 처음으로 이 지역에 상주할 수 있게 되었다.

美國의 石油에 대한 세력감퇴는 일반적으로 美國의 세력과 세계도처에서 美國에 대한 의지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애처롭게 생각하나,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Forbes)

## □ 아름다운 생을 위하여 □

# 간직하고 싶은 글귀

- 만약 당신이 어떤 자질을 갖고 싶으면 마치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란 공동묘지에 있는 이들이다. 만일 당신이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 의미이다. 문제가 많을수록 그 만큼 더 살고 있는 것이다.
- 젊은이는 비판이나 부정을 양식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이상에 의해서 산다.
-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재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마음속의 생각에 불과하다.
- 현재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자는 벼들에 있는 실을 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후

회하게 될 것이다.

- 조그마한 주전자가 빨리 끓는다.
- 올바른 자는 자기의 욕망을 컨트롤 하지만, 올바르지 않는 자는 욕망에 컨트롤 된다.
- 인생이란 아무리 고치고 고쳐도 결코 알맞아 보이지 않는 옷이다.
- 재능은 고독속에서 이루어지고, 인격은 거친 세상의 파도속에서 이루어진다.
- 죽으려 하기보다 살려고 하는 편이 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련이다.
- 용기있는 사람은 양심이 명령하는 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